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6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F. 1. 솔로몬: 흠 없는 평화 – 하나님의 땅을 내어줌

따라서 "F" 아래의 "1"은 "흠이 있는 평화, 왕상 9:10-25"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0-25절에서 논의한 내용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논의했던 것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아셀 지파에 속한 약속의 땅에 참여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속하였거나 아셀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곳은 여호와의 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땅을 빼앗아 이방 왕에게 담보로 빌려줄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한 일입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갈 때, 그 땅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면서 일을 했지만 그 땅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지파 안에 속한 가문이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땅을 가계에서 팔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솔로몬, 또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진정한 언약의 왕이 하기에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일, 즉 그 땅의 일부를 이방 왕에게 주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행동에서도 이 평화의 왕국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나는 평화왕국의 최종 실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의 왕국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이 여기에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하고 추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주지를 포기하도록 강요 받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이방인 통치자에게 넘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환멸과 냉소주의를 피함

거기에 포함된 “평화의 원칙”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리적 영토권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정치적 실체로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 현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 안에,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존재하고, 그것이 신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같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균열하고 다스리는 것에도 결함과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낄 정도로 결립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기까지 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있든 신약 시대에 있든, 완전하고 온전한 완전한 왕국과 평화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착하지도 않았고 아직 온전하게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관점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주의적인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이생과 현세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바랄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왕국이 완벽하기를 바랐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상주의적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또 다른 면은 교회나 사회에서 보이는 악한 일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정도로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일을 무시하고, 따라서 문제를 볼 때, 옳지 않은 일을 볼 때 그냥 용인합니다.

당신은 사물에 대해 냉소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자의 입장이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능력을 너무 적게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척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인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균형과 관점에서 모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일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노력해야 합니다. 결과가 완전하고 최종적이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환멸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솔로몬도 하지 않았고 다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완전한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까지는 결과가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결함이 있는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거의 반대 상황을 제시합니다. 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과 받침 테라스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슬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하여 징집한 노역에 관한 기록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셀과 가나안 주머니 그리고 게셀이 언급된 후 16절에서 팔호 안에 있는 진술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게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그곳의 가나안 주민들을 죽인 다음 그 땅을 자기 딸인 솔로몬의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고 요새화했습니다.

나는 3장에서 게셀에 관해 언급한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3:1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솔로몬이 그 결혼 동맹과 함께 이 성읍 게셀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전 구절에서 솔로몬은 20개의 도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도시를 받습니다. 그는 이방 통치자에게 20개의 도시를 주었고, 이제는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게셀이라는 도시를 받습니다.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약속의 땅의 영토에 속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 10장 33절에서 게셀이 패배했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 10:33은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게셀은 패했지만, 그 성은 멸망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거나 점령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복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도시는 가나안 도시로 남아 있었다.

자, 여러분은 현재의 사건 때문에 소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가 현대적인 문제, 최근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랍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특히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예루살렘에는 아모리인, 헷인, 페리스 족속 과 그 땅 각지에 있는 히위 족속이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게셀도 그러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정복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가나안 주민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약성서에서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어 이방인 숭배를 따르게 하고,

이교도 관행. 이 사람들의 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사사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관습을 따라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정치적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은 종교적 위협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솔로몬 시대에는 게셀에 관한 정치적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지만 종교적 측면은 게셀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한 다른 가나안 주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정복 당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모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교적인 종교 관습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게셀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정복되어 불에 탔고, 그 주민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 애굽 바로에 의해 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게셀에 대한 행동은 때때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불리기도 하는 이 “금지”를 활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집트 파라오의 군사적 원정에 불과했는데, 파라오들이 그렇게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나안 땅을 왕래하며 행군하는 것은 오히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로는 그 도시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집트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폐허는 남겨졌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폐허를 딸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구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 성을 재건하고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바 여왕과 하나님 스바 여왕 은 솔로몬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에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너를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말씀이군요. 그녀는 왕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공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주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국빈 방문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물을 교환하는 일이 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부에 관해 몇 가지 언급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왕의 은총 중에서 그 외에 그가 구하고 구한 것을 다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떠나고 수행원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매년 받은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NIV 연구 성경*에는 상인과 상인, 모든 아라비아 왕과 그 땅의 총독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약 25톤이라는 텍스트 메모가 있습니다. 이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방패에 들어간 금은 육백 베가였습니다. 베카는 약 7.5파운드입니다. 왕은 그것을 레바논 숲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상아로 상감하고 정금으로 입힌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왕좌에는 여섯 개의 계단이 있었고, 그 등받이에는 둥근 꼭대기가 있고 좌석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2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잔은 다 금이라. 레바논 숲 왕궁의 집기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은으로 만들지 않았습다.”

자, 여러분은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의 부에 관한

이러한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진술에서 아마도 전환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판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니면 본인을 위해 사용하시나요?

솔로몬과 신명기 17장과 금 축적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왕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둘째,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으나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은과 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서 처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축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읽어 보면,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을 정확히 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가 은과 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면 그가 자신의 부를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궁전에 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와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그 장식물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잔은 모두 금이었다. 그의 가재도구는 모두 금이었다. 은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판단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금 잔 세트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 가정용품의 경우 모두 순금입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인상을 남기고, 궁정의 모든 화려함을 갖춘 고대 세계의 다른 왕들처럼 되기 위해 부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그의 왕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 큰 보좌를 상아로 상감하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왕좌에는 여섯 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등받이에는 둥근 윗부분이 있었고, 좌석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계단에는 열두 사자가 각 계단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왕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왕좌였을 것입니다. 6단계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나 신명기의 왕의 법에 따르면 왕은 자기 형제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솔로몬의 태도가 신명기 17장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궁금합니다. 왕좌는 그가 자신을 그의 백성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9절에 이 문구에 대한 흥미로운 질감 변형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층계가 여섯 개 있고 그 등받이 꼭대기는 둥그스름했습니다.” “그 등받이에는 둥근 머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에는 “그 보좌의 등에는 송아지 머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선호되는 독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70인역과 원래의 선호 읽기가 포함된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때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보좌의 창조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징후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1장 다음 장 5절에 이르면 “그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 몰렉을 따랐더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솔로몬이 통치 중 어느 시점부터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사상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왕좌에 송아지 머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왕좌에 바로 포함된 일종의 우상 숭배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읽기가 아니라 칠십인역 읽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을 통해 부에 대한 그림을 얻고 이를 이스라엘 왕들의 행위를 규정한 신명기 17장의 진술과 비교할 때 솔로몬이

진정한 언약의 왕이 아닙니다. 언약의 왕에 대한 이상을 찾을 때 솔로몬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좌에 대해 말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가운데로 흘러내리더라 도시의 큰 거리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참된 왕, 참된 평강의 왕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상이 성취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화왕국 [혼합주의] 솔로몬왕국의 전체적인 모습은 모두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없고 번영도 있었고, 적어도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솔로몬 자신도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큰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단번에 큰 부를 가지고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축적했고, 그런 다음 이 모든 아내들을 다시 점진적인 과정으로 축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이방인 숭배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며 너는 오직 한 지파만 남게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초기 아들이고, 이 평화의 왕국에 대한 그의 통치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하고 평화로운 왕국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곳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배와 이 이교 신들의 예배를 결합시키려는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 왕들, 왕들에 걸쳐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몰락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행한 일들은 후세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행했습니다. 혼합주의라고 불리는 이 것은 바로 시내 산의 금송아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 전반에 걸쳐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10분만 쉬자.

데이비드 포그(David Fogg)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